

롯데전 싹쓸이...호랑이 앞에 아무도 없다



7일 부산 사직야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 KIA 타이거즈의 경기. 8회초 2사 3루 KIA 서동욱이 투런홈런을 날리고 동료선수들에게 축하를 받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서동욱 역전 투런 등 3타수 2안타 3타점...5-3 승 견인 김윤동 첫 승·임창용 1승2S...KIA, NC와 2.5게임차

‘호랑이 군단’이 시즌 세 번째 스윙(3연전 3승)과 함께 거침없는 1위 질주를 이어갔다.

KIA 타이거즈가 7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서 5-3으로 이기며, 주말 3연전을 모두 승리로 장식했다.

주중 넥센 히어로즈의 안방에서 2승1패로 위닝 시리즈를 거뒀던 KIA는 주말에는 김윤동·임창용이라는 든든한 방패로 뒷문을 지키면서 시즌 세 번째 스윙을 만들었다. KIA의 올 시즌 전적은 23승9패,

2위 NC 다이노스와 2.5게임 차 1위다. 허벅지 통증의 김주찬과 휴식 차원에서 나지안을 빼고 작성된 라인업에서 7번 타자 서동욱이 ‘해결사’였다.

7연승에 도전했던 롯데가 1회 2사에서 연속안타를 허용하며 불안한 출발을 했다. 실점 없이 1회를 넘긴 뒤 2회를 삼자범퇴로 막은 롯데가 3회 1사에서 손아섭에게 2루타를 맞으며 실점 위기에 몰렸다. 나경민의 깊숙한 타구를 버나디나가 잘 쫓아가 중견수 플라iero 만들었지만 이대호의 적시타가 나오면서 0-1. 최준석의 볼넷과

강민호의 중전 안타로 2사 만루까지 상황이 전개됐고, 롯데가 김문호를 삼진으로 돌려세우며 간신히 위기를 넘겼다.

롯데는 4회에도 몸에 맞는 볼과 안타로 주자를 내보내는 등 앞선 등판과 달리 어렵게 이닝을 풀어나갔다. KIA 타선도 롯데전에 박진영의 씩씩한 피칭에 말리며 공격 시간 보다 훨씬 긴 수비시간을 보내는 등 초반 답답한 흐름이 계속됐다.

롯데의 흐름으로 흘러가던 5회초 서동욱이 볼넷으로 걸어나가면서 KIA가 처음 선두타자가 진루에 성공했다. 서동욱은 김

순위	팀명	경기	승	무	패	승률	게임차
1	KIA	32	23	0	9	0.719	0.0
2	NC	32	20	1	11	0.645	2.5
3	LG	32	20	0	12	0.625	3.0
4	SK	32	16	1	15	0.516	6.5
5	넥센	32	15	1	16	0.484	7.5
6	롯데	32	15	0	17	0.469	8.0
7	두산	32	14	1	17	0.452	8.5
8	한화	32	14	0	18	0.438	9.0
8	kt	32	14	0	18	0.438	9.0
10	삼성	32	6	2	24	0.200	16.0

민식의 2루수 앞 땅볼 때 2루로 향한 뒤 김선빈의 우전 안타로 3루에 자리했다. 이어 버나디나의 땅볼 타구를 3루수 김동현이 놓친 사이 홈에 들어오면서 1-1로 균형을 맞췄다.

롯데가 5회말 이대호의 솔로포로 1-2로

역전을 허용하자 다시 한번 서동욱이 움직였다.

6회초 선두타자 최형우가 좌측 담장 맞는 2루타로 출루했지만 상대의 깔끔한 수비로 투 아웃이 채워졌다. 그리고 2사 2루에서 서동욱이 세 번째 타석에 섰다. 서동욱은 롯데 두 번째 투수 박시영을 상대로 우중간 2루타를 터트리면서 다시 승부를 2-2 원점으로 돌렸다.

서동욱의 분전에도 롯데가 6회말 손아섭에게 역전 솔로포를 맞으면서 2-3. 그러나 서동욱이 이번에는 아예 담장을 넘겨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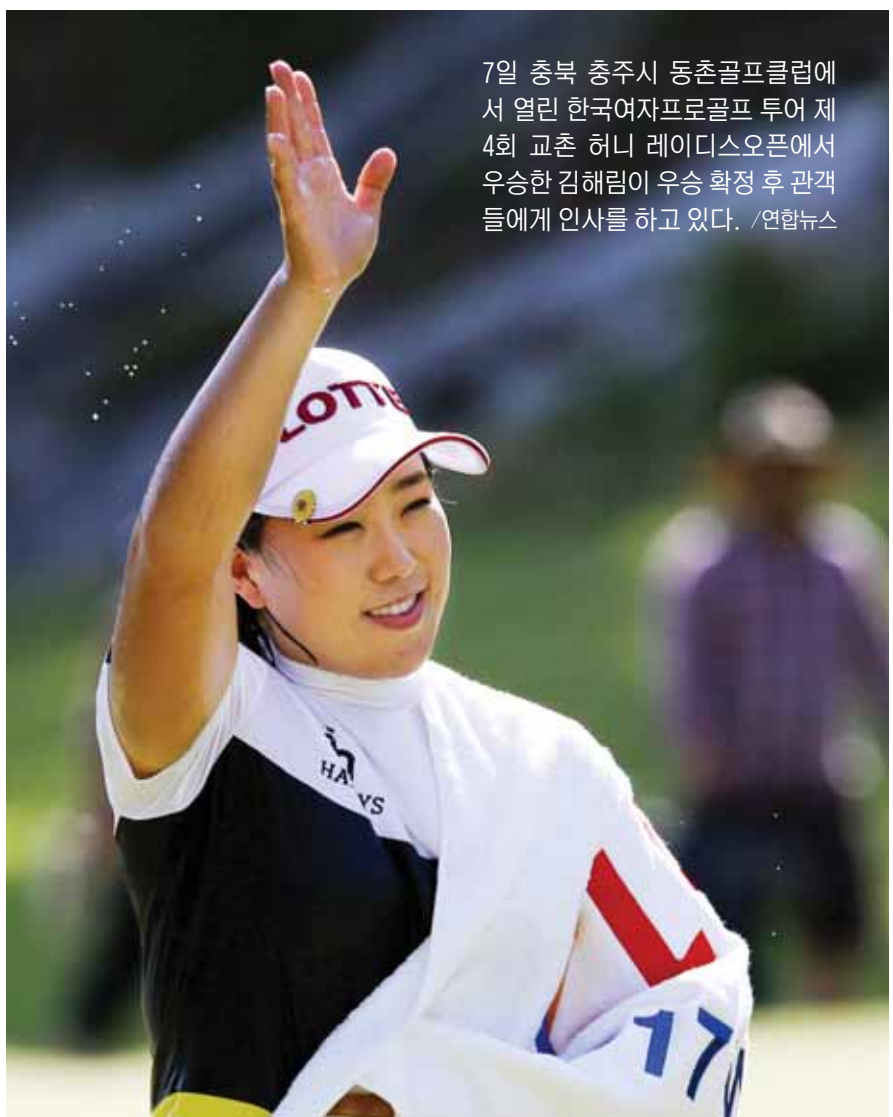
8회초 상대 3루수 송구실책으로 만들어진 1사 1루에서 이범호가 좌익수 키를 넘기는 2루타로 동점 주자를 홈으로 불러들였다. 대타 김주찬이 중견수 플라iero 돌아서면서 투 아웃이 됐지만 서동욱이 롯데

세 번째 투수 장시환의 초구였던 136km짜리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그대로 담장을 넘겼다. 서동욱의 한방으로 5-3으로 승부의 추를 기울인 KIA는 7-8회를 김윤동으로 막고, 임창용으로 9회를 지키면서 3연승에 성공했다.

한편 3-3으로 맞선 7회 마운드에 올랐던 김윤동은 2이닝 동안 피안타 없이 1탈 삼진 무실점의 호투를 하며 프로 첫 승을 신고했다. 임창용도 롯데전 세 경기에 모두 출석해 1승2세이브를 수확하며 부활을 알렸다. 특히 임창용은 지난 6월 3-0으로 앞선 9회말 등판해 1이닝 1피안타 무실점으로 승리를 완성하면서 통산 250세이브 고지에 올랐다. 가장 많은 277세이브 기록을 가지고 있는 오승환(세인트루이스)에 이어 두 번째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극적 뒤집기 이끌샷...김해림 KLPGA 시즌 2승



7일 충북 충주시 동충골프클럽에서 열린 한국여자프로골프 투어 제4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에서 우승한 김해림이 우승 확정 후 관객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 2연패

김해림이 극적인 역전 샷 이끌을 앞세워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제4회 교촌 허니 레이디스오픈(총상금 5억원)에서 2년 연속 정상을 지켰다.

김해림은 7일 충북 충주시 동충골프클럽(파72·6485야드)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3라운드에서 버디 2개와 이글 1개, 보기 4개로 이븐파 72타를 기록했다.

최종합계 4언더파 212타의 성적을 낸 김해림은 2위 정슬기를 1타 차로 따돌리고 지난해에 이어 다시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또 이번 우승으로 3월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에 이어 시즌 2승째를 따냈다. 2017시즌 KLPGA 투어 7개 대회가 끝난 가운데 2승 선수는 김해림이 유일하다.

정슬기가 먼저 3언더파로 경기를 마쳤을 때 김해림은 1언더파에서 3개 홀을 남기고 있었다. 김해림은 이날 버디 1개와 보기 4개로 3타를 잃고 있었기 때문에 2타 차로 따라잡기가 쉽지 않아 보였다. 일단 16번 홀(파4) 버디로 1타 차로 추격한 김해림은 17번 홀(파4)에서 두 번째 샷을 그대로 이끌로 연결하며 단숨에 승부를 뒤집었다.

극적인 역전에 성공한 김해림은 마지막 18번 홀(파5)에서 세 번째 샷이 그린을 넘겨 위기를 맞는 듯했으나 어프로치 샷으로 공을 홀 1m에 붙여 파를 지켜냈다.

연합뉴스

‘엘로 더비’ 전남이 이겼다

K리그 클래식 10R 광주 FC, 전남에 0-5 완패



광주 FC가 ‘원정 징크스’ 탈출에 실패했다.

프로축구 광주 FC가 7일 순천팔마경기장에서 열린 전남 드래곤즈와의 2017 K리그 클래식 10라운드 원정경기에서 0-5 대패를 기록했다.

‘대어’ 전북 현대를 잡는 등 안방에서 반전을 이룬 광주는 전남과의 시즌 첫 ‘엘로 더비’를 통해 원정 첫 승을 노렸지만

만 자일이라는 매서운 창을 막지 못하면서 완패를 당했다.

경기 전반 초반은 광주가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분위기를 주도했다. 전반 9분 오른쪽에서 치고 오른편 광주 송승민이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 이호승의 손에 걸렸다. 전반 14분 코너킥 상황에서도 세밀함이 부족했다. 광주는 초반 적극적으로 움직였지만 기선 제압에는 실패했다.

전반 26분 팽팽하던 경기의 흐름을 깨는 골이 나왔다. 전남 최재현이 전방으로 올린 공을 자일이 머리로 터치하며 광주의 골망을 출렁이게 했다.

김세영-허미정 오초아 매치플레이 준결승 격돌

허미정과 김세영이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로레나 오초아 매치플레이(총상금 120만 달러)에서 준결승에 진출했다.

허미정은 7일 멕시코 멕시코시티의 멕시코 골프클럽(파72·6804야드)에서 열린 대회 사흘째 16강전에서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뉴질랜드)를 1홀 차로 꺾었다.

허미정은 경기가 시작하자마자 2개 홀에서 연속으로 리디아 고를 제치고 리드

를 잡았다. 2번홀(파5)에서 버디를 잡았고, 리디아 고가 보기를 범한 3번홀(파3)은 파로 막았다.

그러나 허미정이 4번홀(파4)과 7번홀(파4)에서 보기를 범하는 틈을 타 리디아 고는 승부의 추를 원점으로 돌렸다. 허미정이 9번홀(파4)에서 다시 한발 앞서나가자 리디아고는 12번홀(파4)에서 다시 동률을 만들었다. 하지만 허미정은 13번홀(파4), 14번홀(파3) 연속 버디들로 승기를

0-1로 뒤진 후반전에도 광주가 먼저 공세에 나섰다. 후반 5분 이민기의 원발 패스를 받은 김민혁이 골키퍼를 앞에 두고 슈팅을 날렸지만 공이 골대를 비껴가면서 아쉬움을 삼켰다.

후반 9분 전남 이슬찬의 골이 나오면서 0-2. 이어 전남 자일의 원맨쇼가 펼쳐졌다.

후반 18분 허용준의 패스를 받은 자일이 골키퍼 윤보상을 넘어 멀티골을 기록했다. 그리고 자일이 후반 31분 다시 한번 허용준과 환상의 호흡을 과시하면서 해트트릭을 완성했다.

허용준과 교체해 들어온 패체신까지 골 맛을 보면서 광주는 전남 안방에서 0-5 대패를 당했다.

‘원정 약세’ 광주의 올 시즌 원정 전적은 2무4패가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를 잡았다. 8강전에서 허미정은 평산산(중국)에 1홀 차 역전승을 거두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갔다.

허미정은 3년 가까이 우승을 추가하지 못했지만, 세계랭킹 1위 리디아 고와 세계랭킹 7위 평산산을 연파하는 등 상승세를 타며 우승 전망을 밝혔다.

허미정은 4강전에서 김세영과 결승 진출을 다툰다. 김세영도 포초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16강전에서 찰리 힐(잉글랜드)을 3홀 차로 꺾은 김세영은 8강전 상대인 카린 이세르(프랑스)를 5홀 차로 물리쳤다.

연합뉴스